

나프타가격 7.1%인하

석유사업기금도 1달러25센트로 내려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가격을 7.1% 인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기준으로 나프타가격은 0당 1백 70원 10전에서 1백 58원 3전으로 내리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입원유에 대해 배럴당 1달러50센트씩 징수하는 석유사업기금을 1달러25센트로 25센트 인하시켜 나프타가격 인하로 인한 정유사의 추가손실을 보전해 주되 내년 4월 1일부터는 국제나프타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해 5% 이상 변동될 경우 국내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국내나프타가격의 연동제를 실시키로 했다.

동자부는 최근의 환율 및 국제금리상승에 따른 당면유가조정 문제는

84년도 정유사의 손익정산결과와 국제원유추이를 보아 내년 상반기중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금조정으로 배럴당 70센트씩 받는 비축기금이 55센트로 15센트 인하됐고, 원유도입선 다변화지원기금은 15센트에서 5센트로 10센트 인하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55센트와 석유개발기금 10센트는 변동이 없다.

또 이번 나프타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나프타에 부과하는 관세는 계속 1%를 적용하고, 나프타생산용 원유에 대해서는 배럴당 1달러 25센트의 기금을 환급해 주는등 나프타수급원활화를 위한 지원시책은 계속 실시키로 했다.

으로 금지키로 했다.

지난 12월 3일 동자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주유소설치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신시가지의 조성이나 도로개설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신규주유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주유소의 설치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추천은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여건변동으로 신규주유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건의가 있어야만 가능토록 규제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주유소의 파다설치와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진데다가 최근에는 주유소를 신설한다는 명목으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후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주유소를 양도하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나프타溜分價格인하 11월29일자 평균 6.78%

상공부는 나프타가격이 7.1% 인하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나프타유분가격을 평균 6.78% 인하했다.

품목별로는 에틸렌이 7.97%, 프로필렌 중합용과 부타디엔, 벤젠등 3종은 각각 6.78% 인하됐다.

이에 따라 ▲에틸렌가격은 종전의 톤당(공장도가격) 43만 1천 8백 23원에서 39만 7천 4백 19원으로, ▲프로필렌 중합용은 40만 6천 1백 4원에서 37만 8천 5백 60원으로, ▲부타디엔은 52만 4천 3백 71원에서

48만 8천 8백 5원으로, ▲벤젠은 35만 3천 6백 37원에서 32만 9천 6백 51원으로 각각 내리게 됐다.

이번 유분가격조정은 나프타가격인하에 따른 인하요인 5.79%와 석유화학업계의 가동률향상에 따른 0.99%의 인하요인을 합쳐 평균 6.78%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상공부는 설명했다.

신규주유소 억제방침 農地전용추천을 금지

정부는 신규주유소의 파다한 설치를 억제키 위해 앞으로 주유소설치허가를 위한 농지전용추천은 원칙적

麗水에너지 면세혜택 산업합리화기업 지정

LPG수입회사인 正友에너지와 이 회사를 흡수 합병하기 위해 설립된 麗水에너지가 산업합리화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麗水에너지가 正友에너지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백43억원, ▲취득세 12억원, ▲등록세 6억원등 모두 2백61억원의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申秉鉉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LPG수입사업의 산업합리화계획」

을 의결했다.

동력자원부 직제개정 일부 課명칭 바뀌

동력자원부의 일부課의 명칭이 바뀌었다.

지난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자부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자원정책실의 油政課가 석유정책과로, 생산유통과가 석유수급과로 바뀌고 자원개발국의 기획과는 에너지정책과로 변경되었다.

油化공장 신증설 湖南精油 등 3社

湖南精油와 럭키, 湖南石油化學 등 3개社가 상공부의 사업등록변경승인을 받아 석유화학공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케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湖南精油는 원료인 프로필렌과 이로부터 생산되는 폴리프로필렌공장을, 럭키는 스티렌모노머공장을 각각 신설케 되었으며, 湖南石油化學은 폴리프로필렌공장을 증설케 됐다.

崔鍾賢 鮮京회장에 훈장 콜롬비아정부로 부터



崔鍾賢 鮮京그룹 및 油公회장은

최근 콜롬비아정부로부터 양국간의 관계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공로훈장 「코멘다더」를 받았다.

崔회장은 지난 79년부터 콜롬비아 명예총영사직을 맡고 있다.

大邱저유소 移轉·竣工 湖油 지난 11월20일에

湖南精油 大邱저유소 준공식이 지난 11월 20일 具平會사장을 비롯하여 내외귀빈 및 주민다수가 참석

한 가운데 慶北 敬山군 하양읍 현지에서 거행되었다.

대구저유소는 원래 대구직할시 K-2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國家安保상의 문제로 1978년 11월 4일 경북방위협의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현위치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同저유소는 1982년 6월 4일 총 20,164평의 대지위에 移設工事を 착공, 2년 3개월만에 이날 준공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저유소의 준공으로 湖油는 대구등 慶北일원에 油類供給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



湖油 堤川貯油所 개업식 市長등 관내인사 참석

湖南精油 堤川저유소의 개업식이 지난 11월 30일 堤川市 교암동 현지에서 湖油 R. B. Klugh 전무이사 와 관계임직원 및 堤川市長을 비롯한 관계귀빈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湖油는 同저유소의 개업으로 忠州등 忠北 北部지역과 江原道중부 지역등 내륙지방에 대한 유류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空氣予熱器 설치계약 京仁에너지 仁川工場에

京仁에너지는 에너지절감 시책의 일환으로서 仁川工場에 공기에열기 및 부대시설 1식의 설계 및 건설계약을 韓國綜合機械와 체결했다.

공기에열기는 原油加熱爐에서 원유가열시에 나오는 배기가스중 폐열을 회수, 재사용하는 장치로 연간 430백만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京仁에너지사장에 崔珪圭씨 韓國火藥그룹 최고경영진 인사



韓國火藥그룹은 지난 12월 10일 申鉉琦부회장을 太平洋建設사장겸 직으로, 崔珪圭 韓洋化學사장을 韓洋化學회장겸 京仁에너지 사장으로, 趙忠勳 第一火災사장을 그룹부회장으로 각각 전보 또는 승진하는 등 최고경영진의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崔珪圭 京仁에너지 사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 江原道 江陵출생 (51세)
- ▲ 1957. 3 서울文理大정치학과 졸업
- ▲ 1956. 2 제 7회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 ▲ 1968. 8 재무부기획관리실장
- ▲ 1970. 3 재무부세정차관보
- ▲ 1971. 1 재무부세정차관보
- ▲ 1973. 5 재무부 차관
- ▲ 1974. 2 경제기획원차관
- ▲ 1975. 12 농수산부장관
- ▲ 1977. 12 상공부장관
- ▲ 1982. 12 한양화학사장

經營陣과 근로자의 대화 京仁에너지 仁川工場

京仁에너지 李鍾學부사장과 金榮燦공장장은 지난 11월 3차에 걸쳐 工場사택식당에서 근로자들과 대화를 가졌다.

이번 勞使대화는 상호 신뢰감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며 이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시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京仁에너지는 85년에도 이같은 勞使대화를 계속 가질 예정이다.

불조심 실천결의대회 京仁에너지 仁川공장

京仁에너지 仁川工場은 지난 11

월 16일 京仁에너지 방화훈련장에서 工場長을 비롯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불조심 실천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직원에게 불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시키고 消火능력을 배양하며 이를 실천·결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대회는 직원들의 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消火器를 사용한 초기진압과 유류화재소화에 대한 부서대항경연대회를 거행하였는 데 기술부가 최우수상, 발전부가 우수상을 차지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京仁 無事故 위로회 열어 仁川工場서 11월 17일

京仁에너지 仁川工場은 지난 11월 17일 사택식당에서 공장의 전 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秋季定期補修 무사고위로회를 열었다.

이날 위로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23일간 계속된 1984년도 추계정기 보수작업기간동안 한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침에 따라 工場전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벽지학교에 도서보내 京仁 仁川工場여직원들

京仁에너지 仁川工場 여직원모임인 성지회는 지난 10월 27일 仁川 에그린 커피숍에서 벽지학교에 보낼 도서구입기금을 마련키 위해 일일찻집을 열었다.

이날 일일찻집은 20여명의 여직원들의 정성어린 손질과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황을 이루었다. 성지회는 이날 행사의 수익금으로 도서를 구입, 파주군 탄현면에 있는 탄현중학교에 기증했다.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京仁 本社여직원회서

京仁에너지 本社여직원회는 지난 12월 8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그룹여직원 모임인 불꽃외와 함께 84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열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바자회는各社사장들의 솜씨가 담긴 도자기 특설코너를 마련, 눈길을 끌었으며 바자회종료시간을 약 1시간 앞두고 물품이 모두 매진되어 뒤늦게 온 사람들은 미처 매장을 돌아보지 못했다.

秋季자연보호 등반대회 京仁에너지 산악회

京仁에너지 산악회는 지난 11월 25일 경기도 가평에 있는 명성산에서 신입사원을 비롯한 100여명의 산악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84추계 자연보호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남여신입사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직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여 많은 등산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雙龍, 신입사원 17명 채용 내년 3월에 부서배치

雙龍精油는 12월 10일 제 6기 대졸 신입사원 17명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들은 모두 428명의 응시자중에서 서류전형·필기시험 및 면접등 3단계에 걸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전공분야별로 보면 경제가 5명, 경영이 3명, 법학이 3명, 화공이 3명, 기계·전기·전산이 각각 1명씩이다.

이들은 12월말까지 그룹 연수교육과 본사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공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실습교육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각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雙龍 추계바둑대회 마쳐 52명 참가 열전거듭

雙龍精油 본사기우회추최 가을철

정기바둑대회가 52명의 바둑애호사우들이 참가, 50일간의 열전끝에 지난 11월 29일 3개조 결승전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쌍용(1~3급), 청룡(4~6급), 이무기(7~9급)등 3개조로 나뉘어 토너먼트·패자부활전 방식으로 열전을 벌여온 이번 대회는 일부 참가자들의 두드러진 실력향상으로 1회전부터 예측밖의 결과가 나오는 등 난전을 거듭했다.

각조 3위까지의 입상자에게는 고급 바둑판등 상품이 수여됐다. 조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우승-준우승-3위순).

▲쌍용조(1~3급) 유봉희(전산개발과장) 유용진(운환판매부) 유석재(업무부장)

▲청룡조(4~6급) : 정제천(전산팀) 김준은(프로젝트부) 이석중(자금부)

▲이무기조(7~9급) : 신성태(운환판매부) 윤봉익(감사부) 박영준(기획조정부)

道庁기자단 雙龍工場 방문 완벽한 폐수처리에 감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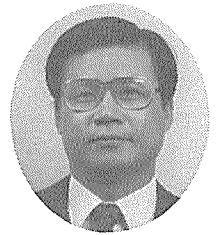
경남도청 출입기자단 일행 5명이 지난 11월 16일 오후 온산공장을 방문, 이선중 공장장과 환담을 나누고 생산현장을 돌아보는 등 약 1시간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

연합통신 창원주재기자를 비롯한 부산일보, 경남신문, KBS, MBC등 신문·방송의 도청출입기자단은 경남도 공보관의 안내로 이날 오후 2시 온산공장에 도착하여 공장 현황 브리핑을 듣고 주요 공정시설물 등 현장을 돌아보았다.

방문기자단은 생산현장을 돌아보

던중 폐수처리장의 배출구 부근에 매지어 날아온 갈매기와 공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떼의 평화로운 정경을 목격하고 폐수 배출구 주변 환경이 깨끗한데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極東 張사장 장학금전달 경찰관자녀에 1천2백만원



張洪宣 極東石油사장은 지난 11월 29일 경찰관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천 2백만원을 치안본부에 전달했다.

極東여직원 양로원위문 일일차집 수익금으로

極東石油 釜山支社의 여직원 모임인 「한아름會」는 불우이웃돕기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8일 남포동 강강다방에서 일일차집을 열었다. 이번 일일차집에서는 「한아름會」의 꽃꽂이 작품도 전시하여 그동안 다듬어온 솜씨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아름會」 회원들은 이날 차집운영의 수익금으로 선물을 마련,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재건사양로원」을 방문·전달하고 노인들을 위로했다.